

증권(Neutral)

한국 자본시장 60년 포럼 후기: 성장의 방향성을 논의하다



증권 담당 서보익

Tel. 368-6875 / seoboick@eugenefn.com

■ 금융위원회: 증권산업의 구조재편에 무게중심을 둔 방향성 제시

- 증권사 M&A 인센티브 부여, 경영부실 증권사의 강력한 구조조정, 중소형 증권사의 콜 차입 참여 제한 등 시장에 의한 구조재편을 유도하는 방향성 재강조(연내 증권사 M&A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예정)
- NCR 제도 개선: 증권산업의 잉여자금을 적극적 투자영역으로 유도
- 사모펀드 규제 완화, 연금자산(퇴직연금 등)의 자본시장 투자 규제 완화, IPO 조건 완화, 주식시장 간(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이전 시장 확대 등 규제 완화의 방향성 제시

■ 금융투자협회: 증권산업의 경제/정치적 기능 강조, 대형화와 전문화의 로드맵 제시

- 2020년 한국 경제의 고령화 속 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 거시경제적 틀 안에서 증권산업의 성장 과제에 정치적,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
- 기존의 '노동 및 물적자본' 중심 성장에서 '혁신적 기술 + 자본동원능력'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 특히 자본동원능력은 금융투자회사의 핵심 기능으로서 핵심산업(IT, 조선, 해양, 화학 등)과 성장의 궤를 같이 하는 역할이 중요
- 대형화(자기자본 10조원 규모): 글로벌 투자 및 상품 플랫폼을 제공하는 투자은행으로 육성
- 전문화: 종합서비스보다는 전문화에 중심을 둔 구조재편
- NCR 규제 완화(잉여자본의 효율적 활용), ELS/DLS 등 중위험/중수의 상품의 필요성 강조

■ Analyst Comments: 자본시장의 기능을 재정립, 시장기능을 최대한 보장한 규제완화가 절실

- 자기자본 10조원 규모의 대형 종합금융투자회사의 육성에 대한 제안에 동의. 다만 organic growth(자생적 유기적 성장)이 어려운 가운데 민영화가 진행중인 대형 증권사의 조합을 고려하거나, 또는 삼성 등 대그룹계 증권사의 대형화 전략에 소극적인 점 등은 한계로 인식
- 오랜 기간 전문화, 특화가 성장 방향으로 제시되었음. 그러나 협소한 시장규모, 제도적 인센티브 부재, 종합화와 전문화 간의 경쟁구도 중첩 등 현실적 제약을 완화시킬 대안이 필요
- '경쟁을 촉진 →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 구조재편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증권산업의 수익성이 훼손되는 힘든 시기가 수 년째 진행 중임. 그러나 찬바람보다 햇볕이 변화를 유도하듯, 국가 경제에서 자본시장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한 규제완화(NCR 규제 완화와 같은)로써 산업의 자율적인 성장과 구조재편을 이끄는 정책이 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으로 생각
- 증권주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증권산업의 수익성 악화와 구조재편 및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단기 투자는 보수적으로, 그러나 장기 투자는 기회를 기다리는 유연함으로 대응할 필요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STRONG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20%이상 ~ +50%미만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0%이상 ~ +20%미만
• REDUCE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0%미만